

월간 내일

January 2026
Vol.608



배우 신예은

월간 내일

JANUARY 2026

Vol.608



CONTENTS

성취로 가는 길목, 인내

내일의 보람

<내>일의 감각이 필요한 시대,
나의 일을 위해
필요한 감각에 관한 이야기

08

다짜고짜 설문

함께 만든 「월간 내일」 이야기

10

일잘러를 만나다

삶을 조율하는 유연한 조직, 행복한 일터를 설계하다
셀리코리아컴퍼니

16

내일 인터뷰

기다림이 나를 단단하게 만든다
배우 신예은

내일의 바람

내일을 살아가기 위해 알아야 할
고용노동 관련 정책과
활기 넘치는 현장의 소식

20

MOEL 아카이브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로

24

굿 파트너

정책 현장을 국민에게 더 가까이
제17기 고용노동부 정책기자단

28

체인지입! MOEL

기업과 노동자 모두가 행복한 이로운 상생, 값진 성과

32

함께 하는 MOEL

희망의 집을 짓는 도전, 코리안 드림
타지키스탄 출신 근로자 소누 씨의 한국 적응기

36

내일 로그

맞춤형 업무 시로 생산성을 극대화하다
AI 업무 프로세스 개발자

38

어땠을까

수고했다, 또 잘해보자

내일의 사람

일하는 사람들의 워라벨을 위한
다양한 문화정보

40

MOEL 뉴스

44

아보하 스포츠

전나무숲길을 걸으며 자연과 교감하는 시간
오대산 월정사

48

내일 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
• 무엇으로 선택하시겠어요?

50

취향시대

달라진 연말정산, 이렇게 준비하자!

52

직장인 어휘 캘린더

당신의 하루를 되찾는 작은 혁명

54

내일 모의고사

January 2026 Vol. 608

고용노동부 소식지 「월간 내일」

발행처 고용노동부 발행인 고용노동부 장관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전화 044-202-7751 홈페이지 www.moel.go.kr 웹진 www.labor21.kr 기획·제작 경성문화사

고용노동부 소식지 「월간 내일」의 저작권은 고용노동부에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이 책에 실린 모든 글과 그림, 사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월간 내일
웹진 바로가기

인내의 시간이 만들어 내는 기적

옷칠은 시간 위에 시간을 쌓아 올립니다.
한 겹이 숨을 고르는 동안,
다음 겹은 아직 오지 않은 기다림 속에 머물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그 느린 축적 속에서,
마침내 빛은 스스로 깊어집니다.
보이지 않던 모든 순간들이 모여 하나의 윤기로 떠오릅니다.

통영 나전칠기의 눈부심은 반복의 자식입니다.
자개를 붙이고, 칠하고, 갈아내고, 다시 칠하는
그 끝없는 되풀이 속에서 문양은 제 목소리를 찾아갑니다.
한옥 단청의 색은 벽의 호흡에 자신을 맡기며,
계절들이 지나가는 동안 천천히 제 자리를 찾습니다.
찬란함의 이면에는 언제나,
아무도 세지 않은 기다림의 날들이 겹겹이 누워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더딘 날들, 의미를 잃은 듯 반복되는 아침들,
한동안 표정 없이 흐르는 시간들.
그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의 결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그 결이 빛을 머금으리라는 믿음,
아직 오지 않은 광택에 대한 신뢰,
그것이 인내가 남기는 가장 조용한 기적입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시간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천천히, 한 겹 한 겹, 제 속도로 쌓여갈 뿐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무언가 빛나고 있다는 것을.

함께 만든 '월간 내일'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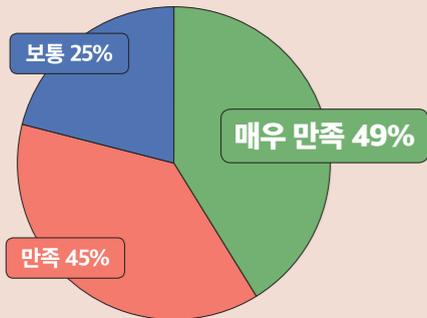
2025년 한 해 동안 '월간 내일'에 보내주신 독자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깊이 있고 유익한 콘텐츠로 보답하는 매거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글 편집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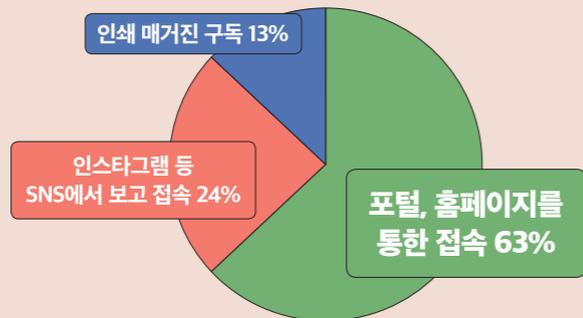
2025 '월간 내일' 독자만족도 조사

· 기간 2025.12. 1.~2025.12.12. · 참여 382명 · 당첨자 30명(커피 쿠폰 1만 원권, 개별 통보)

Q1. '월간 내일'을 읽고 만족스러우셨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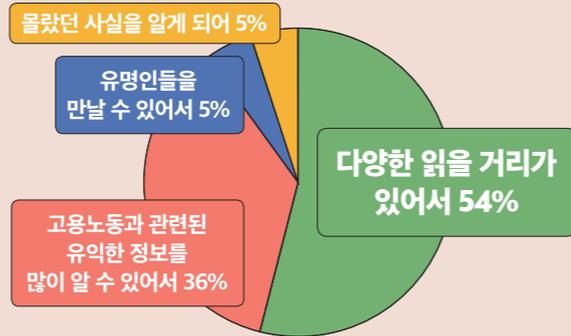
Q2. 주로 어떤 경로로 '월간 내일'을 읽고 계시나요?



Q3. 가장 즐겨 읽는 칼럼 TOP7(중복 선택)



Q4. '월간 내일'을 읽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으로도 다양한 정보와 재밌는 소식 많이 들려주세요!

고용·노동을 깊이 있게 조명하는 콘텐츠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고용·노동 정책을 정확하고 깊이 있게 조명하는 한편, 다양한 직업 세계와 요즘 세대가 바라보는 '일'의 가치와 인식을 살펴볼 수 있는 흥미로운 기사를 지속적으로 선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청년층과 사회 초년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취업 트렌드 분석은 물론,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 환경 속에서 개인이 준비해야 할 역량과 방향성에 대한 콘텐츠가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서울시 서초구 김영숙 씨

일하는 현장의 이야기를 많이 담아 주세요!

'일잘러를 만나다'와 '내일 인터뷰'는 많은 영감을 주는 코너이지만, 실무자와 현장 노동자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보다 폭넓게 담아주시면 더욱 의미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스타 기업이나 셸럽 중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전문성을 쌓아가는 평범한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조명한다면 '월간 내일'만의 시선과 정체성이 한층 선명해질 것 같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주지혜 씨

지역과 세대를 뛰어넘는 다양한 일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정책과 진로 정보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 자료와 핵심 요약, 인포그래픽 등 설명 방식을 강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취업 준비 실전 팁과 최신 취업 트렌드 분석이 보다 자주 소개된다면 더욱 유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해외 및 지역별 취업 정보까지 함께 다룬다면 독자들에게 한층 폭넓은 시각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기도 성남시 임영화 씨





삶을 조율하는 유연한 조직 행복한 일터를 설계하다

쉴리코리아컴퍼니

기업이 지닌 고유한 조직 문화는 직원들의 참여와 열정을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쉴리코리아컴퍼니는 일과 생활, 두 축의 균형을 맞추는 관점에서 일터혁신을 꾀했다. 일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시대, 기업과 직원이 소통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법을 실천하고 있다.

글 김주희 사진 오충근



워라밸을 향한 실천 의지

쉴리코리아컴퍼니는 144년 전통의 글로벌 매트리스 브랜드 '쉴리침대'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쉴리침대는 1950년 정형외과 의사와 함께 개발한 독자적인 스프링 시스템인 '포스처피딕(Posturepedic)'을 선보인 이후 지금까지 글로벌 매트리스 시장을 선도하는 중이다. 차별화된 기술로 완성된 제품을 통해 소비자에게 최상의 숙면 경험을 선사하고 있다.

쉴리코리아컴퍼니는 혁신적인 제품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임직원이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와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그간의 기업 문화 개선 노력을 인정받아 최근 고용노동부로부터 '일터혁신 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

“우리는 ‘일하기 좋은 기업’을 표방하며,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일터혁신 상생 컨설팅’을 통해 노사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사내 프로그램 참여를 촉진하는 조직 구조를 구축했어요. 또 다양한 근무 형태의 직원들을 아우르는 제도와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중입니다.”

인사부 양효선 부장은 워라밸 문화를 확산하며 임직원의 편의를 도모한다고 밝혔다. 회사 차원에서 연차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한 결과, 매년 연차휴가 사용률이 99%를 달하고 있다. 또한 월1회, 오전 근무만 시행하는 ‘패밀리 데이’를 진행하며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장려하고 있다. 분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시차출퇴근제와 간주시간근로제 등 유연한 근무 형태를 제공하기도 한다.

“모든 직원이 유연근무제나 패밀리데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패밀리데이에 연달아 휴가를 사용해 장기간 여행을 즐기

거나 오후에 공공기관이나 병원, 은행 업무를 처리하기도 하죠. 직원들이 개인 일정 수립에 용이하도록 사전에 연간 패밀리 데이 계획을 공지하고 있는데요.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통과 공감으로 '함께' 성장하기

셀리코리아컴퍼니는 '임직원 개인의 성장이 곧 조직의 성장이며, 성장하는 조직 안에서 임직원 개인도 성장할 수 있다'는 인사 철학을 바탕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육 프로그램이다. 2년 연속 전년 대비 2배 이상 높은 교육비를 투자하며 개개



**최상의 숙면을 선사하는 제품만큼이나
임직원의 행복과 소통을 중시하며
개인과 조직이 함께 성장하는
유연한 기업문화를 실천하고 있다.**

인의 성장을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다. 인사부 고수빈 사원은 직무에 맞춘 세심한 교육 프로그램을 강조했다.

“올해는 이론 위주의 직무교육을 넘어 관계 형성, 소통, 공감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MZ 세대 직원이 증가한 조직 상황에 맞춰 소통 문화 개선을 위한 상사관리 교육을 시행하는가 하면, 고객과의 접점에 있는 판매직 직원들을 위한 감정 노동자 보호 교육을 운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내 강사를 양성해 내부 직원을 위한 직무 스트레스 관리 교육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교육 시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설문조사를 통해 피드백을 받고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만족도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5년 연간 교육 만족도는 9.14점(10점 만점)을 달성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이벤트 데이'를 수시로 진행한다. 사무실을 벗어나 자연과 함께 어울리는 '캠핑 데이'를 비롯해 가정의 달에 직접 꽃바구니를 만드는 플라워 윈데이 클래스 등을 운영하는 등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

거리를 좁히며 연대를 더 튼튼하게

셀리코리아컴퍼니는 서울사무소와 여주공장 그리고 전국 각지에 분포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전 직원이 소속감을 느끼기 어려운 조직 구조로, 모든 직원이 하나로 연결된 일체감을



심어주기 위한 노력을 더하고 있다. 지난 2024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전 직원이 참여하는 '대동단결 명랑운동회'를 개최하며 직무와 직군 상관없이 230여 명의 직원이 한데 어울리는 자리를 마련했다.

“나아가 본래 부서 단위로 진행되던 송년회를 전사 규모로 확대해 모두가 소통할 수 있는 행사로 진행했습니다. 일터혁신 상생 컨설팅을 통해 송년회 프로그램을 구체화했고, 사무·생산·판매직에 적합한 시상 항목과 선정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합리성뿐만 아니라 재미와 감동까지 모두 잡은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거리를 좁히는 것을 넘어 정서적인 연대를 강화하는 활동도 진행한다. 공장에서는 외국인근로자와의 화합과 교류를 장

려하는 문화의 날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상호 이해를 높여가는 과정이다. 또 본사 사무직 직원들이 전국 곳곳의 매장에 방문해 고객 최접점에 일하는 직원들의 세일즈 노하우나 고충을 듣고 공감대를 넓히는 '마켓 비짓 데이'도 시행하는 중이다.

더 나은 일터를 위해 디테일을 더하다

셀리코리아컴퍼니는 임직원이 건강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 쓴다. 사내 러닝 동호회 'SRC(Sealy Running Crew)'를 지원하는 것 달리기를 좋아하는 누구나 자유롭게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국가대표 출신 코치의 달리기 코칭 클래스를 지원하기도 했다. 이처럼 디테일을 더한 일터혁신은 다양한 축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나는 중이다. 러닝 동호회 회원 수가 꾸준히 늘어났고, 공통 관심사를 기반으로 세대와 성별 관계없이 유대감을 쌓고 있다. 또 외국인근로자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조직 내 다양성을 포용하는 인식도 한층 높아졌다. 무엇보다 구성원의 행복을 중요시하는 기업 문화는 퇴사율을 낮추고 장기근속을 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나아가 일·생활 균형을 실현하는 문화가 쉐리코리아컴퍼니의 경쟁력으로 작용하며 미래 인재 확보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인사부는 섬세한 접근으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올해 프로그램은 전국 각지에 있는 직원들을 물리적으로 한자리에 모으기 위해 노력했다면, 앞으로는 각자의 자리에서 편안하게 업무를 수

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업무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심리상담·명상 애플리케이션 구독, 문화관람비용을 지원하는 방향도 고려 중입니다. 또 정기 뉴스레터를 발행할 예정인데요. 직원들이 회사의 지원과 제도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사내외 정보를 공유하려 합니다. 이를 통해 톱 다운 방식이 아닌 직원 개개인의 자발적 참여가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일터혁신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쉐리코리아컴퍼니는 ‘유연함’, ‘소통’, ‘연대’를 바탕으로 더 나은 일터를 고민하며 더욱 치밀하고 세밀하게 기업 문화를 설계해 나갈 것이다. 일터혁신의 출발점을 성공적으로 통과한 쉐리코리아컴퍼니의 성장 여정이 자못 기대된다.



MINI INTERVIEW



김정민 마케팅상무

“일터혁신을 통한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기반으로 세대 간 소통 단절을 방지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는데요. 구성원들의 다면적인 부분을 이해하게 되면서 마음을 열고 의사소통을 더욱 원활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파이낸스 우현주 부장

“직무 관련 교육을 통해 업무 숙련도와 전문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법인세 관련 교육을 받았는데, 실무에 큰 도움이 됐어요. 또 조직 내 정시 퇴근 문화가 확대되면서 워라밸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영업부 류석현 과장

“러닝 동호회 SRC 초대 멤버인데 회사의 지원 덕에 건강한 일상을 즐기고 있습니다. 달리기 기록을 경신하면서 성취감도 느끼고요. 또 동호회 내 타 부서 직원들과 유대감을 쌓고 있는데요. 평소 업무 협조를 요청할 때도 한결 수월해진 것 같습니다.”



영업지원팀 김가영 과장

“워킹맘으로서 ‘육아기 재택근로’ 제도를 유용하게 활용했습니다. 출퇴근 걱정 없이 아이 등하원을 도우며 일과 육아 사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었어요. 또 동료 구성원들이 워킹맘 편의를 고려해 회의 시간을 조절하는 등 배려해 주신 덕분에 어려움 없이 육아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기다림이 나를 단단하게 만든다

촬영장의 긴 공백을 견디는 '대기배우'라는 말은 결국 '대배우'로 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기다림과 인내를 기꺼이 받아들인 한 배우의 성장은 오늘도 현재진행형이다.

글 하경현 경향신문 기자 사진 앤피오, 디즈니+

현장에서 체득한 기다림의 미학

장면을 훑치는 존재감으로 관객을 매혹시킨 배우에게 '대배우'라는 영예로운 수식어가 따라붙는다. 언뜻 보면 '대단한 배우'처럼 느껴지는 수식어지만 사실 이 '대배우'라는 수식어의 진짜 의미는 '대기배우'에서 시작됐다.

배우라는 직업은 찰나의 몇 초 되지 않은 연기를 하기 위해 대부분의 시간을 '기다리는' 직업이다. 자신의 배역을 받을 때까지 대본을 기다려야 하고, 오디션을 봤다면 연출자나 작가, 스태프의 선택을 기다려야 한다. 촬영장에 가더라도 자신의 차례를 기다려야 하고, 분장이나 복장을 챙겨입기 위해 분장실에서도 기다려야 한다. 이제 스물일곱 살의 배우 신예은은 이 기다림의 미학을 제대로 체험하고 있는 배우 중 하나다. 배우라면 누구나 해야 하는 '기다리는 일'을 인내심 있게 견디고 있다. 그가 최근에 출연하는 작품들은 시대극, 사극이 많다. 지금의 시간을 표현하는 현대극과 달리 사극과 시대극은 필수적으로 분장이 따라온다. 그리고 소품과 세트의 역할이 크기에 이를 위해 기다리는 시간도 있다.

“제가 정말로 시대물을 특별히 더 좋아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저 역할이나 인물을 욕심내서 만들어보고 싶다는 마음이 큰 건데, 그 당시에 온 작품이 다 시대극인 경우가 많죠. 이 인물이 이런 느낌이니 이런 시대에 맞춰서 살려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인물의 순간순간 감정에 집중해 연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넘나드는 캐릭터 속 확신

신예은이 최근 공개했던 작품의 결이 다 그랬다. 그는 JTBC 드라마 <백번의 추억>에서 1982년을 배경으로 버스 안내양으로 청춘을 보내는 서종희 역을 맡았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 공개된 디즈니플러스의 드라마 <탁류>에서는 강경(지금의 한강)에서 양갓집 규수지만 장사에 뛰어드는 최은을 연기했다.

“<백번의 추억> 대본을 보고 종희라는 캐릭터의 진취적인 모습이 마음에 들었죠. 종희를 맡겨주시면 잘할 자신이 있었어요. <탁류>의 경우는 대본이 술술 읽힌 것도 있지만, 연기에 대한 갈증이 있었고 표현할 수 있는 연기의 한계가 무엇일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어요.”



2022년 디즈니플러스 <3인칭 복수>를 통해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그는 바로 그해 첫 번째 파트가 공개됐던 넷플릭스의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배우 임지연이 연기한 박연진의 아역을 연기하며 눈길을 끌었다. 오밀조밀 귀엽게 생긴 외모였지만 눈동자에 싸늘한 느낌을 띄워 올리며 주인공 문동은(배우 정지소)을 괴롭힐 때의 미소는 모두를 섬뜩하게 했다.

“다채로운 캐릭터를 연기했는데요. 저는 작품을 선택할 때, 제가 잘 해낼 수 있는 역할인지를 먼저 보는 것 같아요. 해보고 싶은 것보다는 잘 하는 것과,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확신이 드는 작품을 선택합니다. 제가 그 배역에 대해 확신을 갖고 깊이 표현할 수 있겠다는 느낌이 있어야 더 좋은 연기가 나온다고 생각해요.”

<더 글로리>로 유명세를 얻은 그에게는 여러



드라마 <탁류>

가지 작품이 달려왔다. 2023년 SBS 사극 <꽃선비 열애사>의 밝고 깨끗한 윤단오 캐릭터, 다시 시대극인 tvN <정년이>에서는 윤정년(배우 김태리)에게 질투를 느끼면서도 국극단의 배우로서 연기의 혼을 불태우는 젊은 배우 허영서를 연기했다. 특히 이 작품에서 그가 극 중 단 1초 만에 방자의 익살스러운 얼굴로 변신하는 모습은 큰 화제가 됐다.

꾸준함이 만드는 연기의 체력

2016년 성균관대 연기예술학과 입학, 그로부터 2년 후인 2018년 데뷔. 배우 신예은은 연기 전공으로 대학에 입학한 지 10년이 다 됐지만, 여전히 연극·영화학도 같았다. 인터뷰를 할 때 나오는 모든 말들도 연기를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는지에 집중해 있다. 매일 연기를 배우고 익히고 써먹으며, 연기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 골몰하는 학생처럼 그의 하루도 온통 연기로 가득 차 보인다.

그러한 열심과 열정은 데뷔 이후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따르기도 했지만, 매년 한 작품 이상 씩은 꾸준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 그리고 촬영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 하나의 대본을 갖고 만족할 만한 연기가 나올 때까지 끊임없이 스스로를 다그친다. 얼굴은 옛되고, 그 모습은 청초할 수 있지만, 그 눈동자 안에 가진 고집은 만만치 않다. 만족할만한 연기가 나올 때까지 인내하고, 스스로를 단련한다.

“보통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 무엇인가를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생각보다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 참아야 하는 일들이 없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따분하고 시시한 일상이라고 하지만, 저는 스케줄이 없을 때는 대부분 부족했던 잠을 자거나 운동을 하고, 교



드라마 <백번의 추억>



드라마 <정년이>

회에 가거나 연기 레슨을 받으면서 시간을 보내요. 때로는 하고 싶지 않지만, 제가 좋아하는 연기를 하기 위해 참으며 하고 있습니다.(웃음)”

'대기'가 쌓이면 '대(大)'가 된다

꽤 많은 작품을 하면서 어느 정도 신뢰를 주는 연기자로 성장했지만, 신예은은 스스로 아직 더 인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에게는 한 작품 한 작품 주어지는 기회가 소중하기 때문이다. 기회의 소중함 그리고 그 기회를 스스로 이뤄냈을 때의 총명한 기쁨이 그를 움직인다. 이제 어느 정도 얼굴과 이름이 알려졌다고는 하지만, 그에게 배움은 끝이 없다.

“저는 힘든 순간이 올 때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바라보려고 다짐합니다.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당연히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정적인 감정에 머무르면 그 감정에 휩쓸릴 것 같아서, 저는 항상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은 무엇이고,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 늘 객관적으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표현하기 어려웠던 캐릭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제가 스스로 부담과 긴장을 크게 느껴서 그 역할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던 부분도 있었어요.”

스물일곱의 배우, 그에 앞서 기꺼이 기다리는 일을 즐기면서 자신을 다지는 한 명의 아티스트. 지금 우리가 만끽하고 있는 배우 신예은의 연기는 그의 그런 길고 지루할 수 있는 노력을 통해 꽃을 피웠다. '대기배우'가 실제 '대배우'가 안 될 리도 없다.

2026년 새해의 힘찬 걸음이 필요한 지금. 신예은은 자신의 좋은 기운을 <월간 내일> 독자들에게도 전한다.

“새해를 맞아 여러분의 삶에 웃음이 가득하고, 사랑이 넘치는 나날만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더 깊이 있는 이야기, 인터뷰 전체 내용은 웹진에서 만나보세요!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로

2026년 우리 노동부가 달라진다

고용노동부가 2025년 12월 1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비전으로 한 대국민 2026년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장관, 차관, 본부장, 실·국·과장 및 산하 공공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보고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과 생명을 존중하는 정책 기조로 과감히 전환했다"고 밝혔다. 특히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을 강조하며 정책 설계 단계보다 집행과 현장 체감에 중점을 뒀다.

자료 고용노동부



노동시장 격차 해소

고용노동부는 일할 기회, 산업현장 위험, 노동시간, 임금·복지 등 4가지 핵심 격차 해소에 나선다. 20·30대 70만 쉬었음 청년에게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본격 추진하고,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 10개소를 설치해 발굴-접근-회복을 세심히 지원한다. 소규모 사업장까지 안전정책이 닿도록 분야별 유관기관과 협력해 정책 길목을 확보하고, 5,400억 원의 재정지원을 신속히 연계한다. 실노동시간을 OECD 평균 수준인 1,700시간대로 단축하기 위해 포괄임금제 금지, 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제화를 추진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하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법제화 로드맵을 상반기 중 수립한다.

노동있는 산업 대전환

인구구조 변화와 AI·기후위기 등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노동소외를 방지한다. 중장년은 경력설계와 재취업 지원을 확대하고, 일하는 부모는 10시 출근제와 방학 중 육아휴직으로 지원한다. 100만 외국인 노동자를 소중한 이웃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전체 외국 인력을 DB화하고, 비전문에서 숙련 인력으로 전환 경로를 마련한다. 'AI+ 역량 業UP 프로젝트'로 15만 명에게 AI 역량을 강화하고, AI 대응 일자리정책 로드맵을 마련한다. 144만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위해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고 노동자 추징제를 도입한다. 고용 보험 적용기준을 소득으로 개편하고, 지역고용활성화 법률 제정으로 지방정부 중심 일자리정책을 강화한다.

'우리 노동부' 믿음직한 친구이자 든든한 보호자

고용노동부는 중앙·지방·현장의 중층적 사회적 대화를 구축하고, 노사정이 함께 실행 가능한 대안을 도출해 나간다. AI 기반으로 업무를 효율화해 사업장의 노동법·산업안전 위반사항을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국민 서비스 질을 높인다. 학생·공무원 안전교육 이수 의무화와 대국민 캠페인을 적극 추진해 생명·안전 감수성이 정부 모든 정책의 기초가 되도록 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노동부의 미션은 헌법 제32조 정신을 일터 민주주의로 실현해 K-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것"이라며 "모든 일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믿음직한 친구이자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 노동자들이 '우리 노동부'라고 부르며 가장 먼저 달려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 고용노동부는?

비전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		
전략 목표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		
중점 과제	노동시장 격차 해소	노동있는 산업 대전환	노동이 존중받는 일터
추진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년세대 일할 기회 격차 해소 ② 노동시간 격차 해소 ③ 산업현장 위험격차 해소 ④ 임금·복지 격차 해소 ⑤ 인구구조 변화 속 노동시장 참여 확대 ⑥ AI 확산에 따른 위기를 기회로 전환 ⑦ 새로운 산업재해 위험에 대응 ⑧ 모두에게 든든한 고용안전망 ⑨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기본권 보장 ⑩ 일한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는 공정일터 ⑪ 스스로 지키는 참여형 일터 안전 ⑫ 외국인 노동자 포용적 노동시장 구축 		
추진 전략	<p>현장 밀착 현장 이해관계자의 소통·참여를 통한 합리적 대안 마련 *(예) 울산발전소붕괴사고 관련, 발전소 타워 4·6호기 해체를 유가족과 함께 결정 등</p> <p>맞춤 실행 문제의 원인을 대상별로 꼼꼼히 진단하여 대책 마련 *(예) 상습체불 사업주·[원인] 낮은 처벌수준으로 임금체불을 통한 이익이 비용보다 크다고 인식 → [대책] 제재 강화를 통해 임금체불의 비용을 높여 경각심 제고</p> <p>성과 체감 데이터 기반의 체감도 높은 성과 지표를 설정하고 국민이 만족하는 사례를 발굴·전파하여 만족도 제고</p>		
추진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현장 단위 사회적 대화 활성화 · 관계부처+지방정부+민간이 협업 		

2026년 주요 고용노동행정, 이렇게 달라집니다

청년	일하는 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 확대 연령을 29 → 34세로 변경하여 두텁게 보호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시 출근제 · 단기 육아휴직 지원 일·육아 병행을 지원합니다.
임금체불	대화와 상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산 대지급금 지급 기간 확대 3개월 → 6개월 · 처벌 강화 (5년 이하 징역/5천만 원 이하 벌금) 체불 노동자를 보호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하청 노동자 대화 촉진 파트너십을 구축합니다.
노동절	권리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절 복원 62년 만에 복원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보장 144만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산업 안전	신재 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조사 보고서 공개 · 안전보건 공시제 시행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리 기간 단축: 228일 → 160일 직장으로서의 빠른 복귀를 지원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기술 활용으로 AI 정부를 선도하겠습니다. · 생명안전 감수성이 모든 정책의 기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소속·신하기관 비정규직 등 처우를 개선하여 모범적 사용자 거듭나겠습니다. 	

정책 현장을 국민에게 더 가까이

국민과 정책을 잇는 다리가 되기 위해 전국의 다양한 현장을 누벼 온 고용노동부 제17기 정책기자단의 9개월 여정이 마무리되었다. 현장에서 발견한 정책의 의미를 국민에게 더 가까이 전하기 위한 이들의 기록은 이제 하나의 완성된 발자취로 남게 되었다.

글 차유미 사진 고용노동부

정책을 현장에서 바라본 기자단의 활동

2025년 3월 18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해단식이 열린 지난 12월 10일까지, 고용노동부 제17기 정책기자단은 전국과 해외 곳곳의 고용·노동 현장을 찾아다니며 다양한 정책을 국민에게 알기 쉽게 소개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3.84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국내 21명, 해외 4명으로 구성된 총 25명의 기자단은 정책이 어떻게 현장에서 작동하고, 어떤 방식으로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 확인하며 그 과정을 꾸준히 기록했다.

정책기자단의 활동은 단순한 홍보를 넘어, 실제 정책이 적용되는 현장을 관찰하고 전달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기자단은 취업 지원, 직업 능력 개발, 공정 채용 확산,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고용 지원, 사회적경제 기반의 일자리 창출 등 고용노동부의 핵심 정책 흐름을 중심으로 폭넓게 취재를 이어갔다. 청년·중장년·장애인·여성·외국인 근로자 등 정책 수혜 대상층을 다양하게 탐색하며, 정책이 서로 다른 삶의 단계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조명

했다. 해외기자단 역시 세네갈, 일본, 멕시코, 미국 등에서 현지 고용정책과 노동 현실을 취재해 글로벌 시각으로 정책 의미를 확장했다.

이를 통해 정책 현장의 목소리를 객관적인 정보로 정리하고, 국민이 정책의 취지와 운영 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데 힘썼다. 특히 기자단이 취재한 기업 사례가 이후 고용노동부의 공식 우수사례로 채택되는 성과도 있었다. 김예진 기자가 취재한 ㈜한국정보기술단과 김민규 기자가 다룬 부산 철도 사례는 정책 현장 취재가 실질적인 정책 홍보와 사례 발굴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다. 또한 현장에서 확인한 정책 운영 방식과 지원 체계는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로 재구성되어 국민에게 전달되었다. 실제로 기자단이 작성한 일부 콘텐츠는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에서 조회수 1위를 기록하며 큰 관심을 받았다. 박창원 기자의 커리어 플래닝 서비스 취재기와 조원표 기자의 실업급여 안내 콘텐츠는 “정책이 이해하기 쉬웠다”, “현장 이야기가 생생하다”는 댓글과 함께 동기 간 게시물 중 최상위 반응을 이끌어냈다.

제17기 고용노동부 정책기자단



플랫폼을 활용한 다각적 정책 홍보

기자단은 디지털 환경에 맞추어 여러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블로그에서는 특정 정책의 배경, 절차, 현장 사례 등을 깊이 있게 설명해 정책 이해도를 높였고, 인스타그램에서는 카드뉴스와 짧은 영상 콘텐츠를 통해 핵심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담아냈다. 유튜브에서는 현장의 분위기와 정책 적용 현황을 생생하게 전달하여 텍스트로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시각적으로 보완했다.

특히 블로그는 국민이 정책 정보를 검색하고 접하는 주요 경로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어, 기자단이 정리한 콘텐츠는 정책 궁금증을 가진

많은 국민에게 참고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카드뉴스, 현장 스케치, 설명형 영상 등은 직접 현장을 방문하지 않아도 정책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소통 창구가 되었다. 취재 범위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물론 대구, 부산, 울산 등 영남권, 세종, 대전, 청주 등 충청권, 제주까지 전국 단위로 고르게 확장되었다. 또한 해외기자단은 세네갈, 일본, 멕시코, 미국에서 현지 고용·노동 환경과 정책 사례를 발굴하며 글로벌 시각을 더했다.

이와 같은 플랫폼별 특성을 반영한 콘텐츠 제작 방식은 국민이 정책 정보를 더 쉽게, 더 다양한 경로로 접할 수 있도록 기여했으며, 디지털 기반의 정책 소통 체계가 어떻게 확장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청년, 구직자, 중장년, 여성, 장애인 등 고용노동부 정책의 다양한 대상층을 아우르는 콘텐츠를 통해 '누구에게나 닿는 고용정책'이라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다.

현장 중심 취재와 정책 소통의 새로운 방향

제17기 정책기자단의 가장 큰 특징은 현장 취재를 기본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제도와 정책 설명 위주의 글에 머무르지 않고 직접 발로 뛰는 취재를 지향했다. 각종 센터와 기관 방문, 캠페인과 행사 동행 취재 등을 통해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담당자, 이용자, 참여자 등과의 인터뷰를 다수 진행하며 사람 중심의 정책 이야기를 담았다. 거리 캠페인, 기념행사, 심포지엄, 토론회 등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거나 참여한 다양한 행사 현장을 직접 취재하며 행사 취지와 정책 메시지뿐 아니라 참여자의 목소리와 현장의 분위기까지 입체적으로 전달했다.

해단식과 함께 공식 활동은 종료되었지만, 기자단이 남긴 기록은 앞으로도 고용노동부의 정책소통에 활용될 예정이다. 기자단의 콘텐츠는 정책 시행 과정과 현장의 모습을 국민에게 전달하는 데 기여했으며, 디지털 환경 속 공공소통을 확장하는 계기가 됐다. 제17기 정책기자단의 9개월은 정책 현장을 직접 관찰하고 그 내용을 국민에게 전달하는 과정의 연속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축적된 기록은 고용노동 정책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넓히는 데 기여했다. 올해 모집할 제18기는 다양한 홍보의 중요성을 반영해 '정책기자단'에서 '정책홍보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활동할 예정이다. 앞으로 정책홍보단의 활약을 기대한다.

정책기자단은 차기운 정책을 사람의 이야기로 풀어 국민과 정책을 잇는 소통의 다리입니다.



MINI INTERVIEW



노동현 기자

다양한 고용서비스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기획·정리할 수 있었던 점이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단순 홍보를 넘어 국민 관점의 콘텐츠를 만들어 기획 취재의 가능성도 넓혔고, 내년 18기에 다시 도전하고자 합니다. 디지털소통팀의 원활한 협업 덕분에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정책을 깊이 이해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자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조원표 기자

제17기 고용노동부 정책기자단으로 활동하며 우수 기자로 선정되어 정말 기쁘고 뿌듯했습니다. 실업급여,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취재해 주변 지인들에게도 공유하며 큰 보람을 느꼈고, 실업급여 기사로 최다 조회수를 기록했을 때는 더욱 힘이 났습니다. 기자증을 걸고 다양한 현장을 취재한 경험은 제 삶에도 큰 도움이 되었으며, 활동을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소희 기자

정책기자단 활동을 통해 정책이 숫자가 아닌 '사람의 변화'로 실현되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고용정책의 가치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시 고용서비스 토론회, 고용보험 30주년 심포지엄, 국회입법박람회 참여로 정책 흐름을 읽는 기자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 협조 시스템과 맞춤형 역량 강화 교육, 멘토링 도입이 보완되길 바라며, 정책의 온기를 전하는 기자단의 역할을 응원합니다.

기업과 노동자 모두가 행복한 이로운 상생, 값진 성과!

2025년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시상과 격려

기업의 성장 동력은 '좋은 일터'를 조성하는 역량에서 비롯된다. 직원의 행복과 만족을 이정표로 삼은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1월 27일, '2025년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시상식'을 개최한 것. 일·육아 병행, 노동시간 단축, 유연근무 부문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기업들을 격려하고 더 밝은 미래를 도모한 현장을 담았다.

글 김주희 사진 오충근



2025.11.27. 2025년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시상식



노동자의 행복과 기업의 성장을 함께 이루어낸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모두가 행복한 일터의 모범이 되어주시길 응원합니다.

위라벨을 향한 능동적 실천

2회째를 맞은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시상식이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렸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부터 일·육아 병행, 노동시간 단축, 유연근무, 휴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기업들을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함께 했다.

시상식 현장에는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박용순 중소벤처기업부 실장, 박동일 산업통상부 실장 등을 비롯한 내빈과 수상 기업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권창준 차관의 축사로 시상식의 막이 올랐다.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에 선정되신 모든 기업에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인구 감소와 AI 발전으로 인한 일터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결국 사람의 삶과 행복입니다. 여러분은 일·육아 병행 지원제도, 노동시간 단축 그리고 유연근무를 통해 노동자의 삶을 행복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업무 효율도 끌어올려 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이 행복하고 활력 넘치는 일터가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함께 Win-Win하는 동반성장 실천

본격적인 시상에 앞서 우수 기업들의 실천 사례를 담은 영상이 공개됐다. 일·육아 병행, 노동

시간 단축, 유연근무 각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여준 기업과 노동자의 이야기는 많은 공감을 불러왔다.

이번 우수 사례에는 9개 기업이 선정됐는데, 일·육아 병행 지원 부문에는 세 기업이 이름을 올렸다. '아쿠엔티뉴엄(주)'는 임신부에게는 20만 원 상당의 임신부 용품을 제공하고, 출산 시 산후 조리원비를 35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주식회사 비트윈스페이스'는 최대 800만 원까지 출산지원금을 제공하고, 재택근무 시스템을 지원해 육아휴직 복직 후 돌봄 공백을 방지한다. '㈜엑셀세라퓨틱스'는 임신기 노동시간 단축·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통합 신청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시차출퇴근 등을 통해 육아 시간을 보장하는 등 임신부터 육아까지 주기별 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다.

노동시간 단축 사례에 선정된 '앱노트'는 2022

년부터 주 35시간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이지엠앤씨' 또한 평균 근로 시간이 주 35시간이며 초과근무 사전 승인제로 불필요한 야근을 줄였다. '㈜신세계'는 2018년 대기업과 유통업계 최초로 주 35시간제를 전면 도입했다. 또 근무시간 준수 패드롤을 운영해 퇴근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유연근무 활용 우수 사례에 선정된 '㈜제이니스'는 시차출퇴근, 선택근무, 재택근무를 운영하고 있으며, 'LIG넥스원'은 직군별 맞춤형 유연근무를 운영하는데 99%에 달하는 노동자가 사용 중이다. '주식회사 더픽트'는 지역 우수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근무 형태의 변화를 꾀했다.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30분 단위 연차 등을 운영해 근무 환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기업들은 다양한 제도와 프로그램을 도입하며 노동자의 행복 증진은 물론 영업이익



증대, 조직 신뢰도 제고, 업무 만족도 상승, 이직률 최소화 등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었다.

일·생활 균형 확산 위해 기업 지원 대폭 강화

정부는 기업의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해 관련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으며, 국회 심사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육아휴직 등 일·육아 병행 제도 활용에 따른 중소기업의 인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체인력 지원금을 월 최대 12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인상하고,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도 월 최대 2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육아기 자녀를 둔 노동자가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주 4.5일제 등 실노동시간 단축을 도입한 중소기업에는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을, 신규 채용 시에는 추가로 월 최대 80만 원을 지원하는 '워라벨+ 4.5 프로젝트'도 시행한다. 이와 함께 유연근무 활성화를 위해 관련 장려금과 시스템 구축 비용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일·생활 균형 네트워크 사업도 신설한다.

MINI INTERVIEW



주식회사비트윈스페이스
김정곤 대표

“디자인 산업 분야의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인정받아서 기쁩니다. 직원의 행복이 곧 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주변에 널리 전파하고 싶어요. 앞으로도 웃음이 넘치는 일터, 모두의 행복을 우선으로 하는 기업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주)제이니스
이재준 대표이사

“노동자 삶의 편의를 지원한다면 모두가 직장에 열정을 다할 수 있다고 확신하며 행복한 직장 만들기에 힘썼습니다. 크고 작은 노력을 통해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선정이라는 큰 선물을 받았습니니다.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2026년, 회사에서 직원들이 행복을 체감하고, 이를 생산성 향상과 직원 만족도 상승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더픽트
전창대 대표이사

“지역에서 창업 후 일자리와 관련된 노력을 세심하게 기울였습니다. 특히 직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제도와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요.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것, 또 이직률을 낮추는 것이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이를 위한 우리의 노력이 앞으로 지역 청년 기업이 많아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희망의 집을 짓는 도전, 코리안 드림

타지키스탄 출신 근로자 소누 씨의 한국 적응기



지난 2025년 10월, 타지키스탄 국적 외국인 근로자가 처음으로 고용허가제(EPS)를 통해 한국에 입국했다.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17개국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하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타지키스탄 근로자는 모두 3명. 그 중 소누(JURAEV SOBIR) 씨는 현재 경기도 연천의 한 공장에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는 중이다. 그는 '열심히 일해서 고향에 가족들과 함께 살 집을 짓고 싶다'는 꿈 하나로 하루를 채워 나간다. 고향 하늘 아래 지어질 '예쁜 집'은 오늘도 그를 일터로 이끄는 가장 큰 동력이다.

글 차은서 사진 오충근

새로운 희망을 선물한 고용허가제

소누 씨가 한국에 첫 방문하던 날, 그는 인터뷰를 통해 "한국에서 일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타지키스탄 근로자로서 열심히 일해 한국에 좋은 인식을 심어주고 싶다"며 포부를 밝혔다. 그리고 약 두 달이 흘러, 소누 씨가 일하고 있는 경기도 연천 소재의 서은금속을 찾았다.

"안녕하세요!"

어느새 익숙해진 인사말로 맞이하는 소누 씨는 금세 한국 생활에 적응한 모습이었다. 그가 근무하는 서은금속은 강주물 주조업체로, 기계 부품이나 산업용 주물 제품을 제조하는 곳이다. 이곳에서 소누 씨는 다양한 금속 제품을 만드는 주조 업무를 맡고 있다.

"금속을 녹여 금형에 붓고, 다양한 제품으로 성형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타지키스탄에 있을 때부터 아크용접을 해왔던 터라, 하던 일을 했으면 했어요. 아쉽게도 제가 있는 근무지에는 아크용접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힘들진 않아요.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일을 배우는 것도 즐겁습니다."

소누 씨는 잠시 아쉬움을 느꼈지만, 곧 다른 선택지를 택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새로운 일을 배우자.' 그렇게 시작된 주조 작업은 이제 그의 또

다른 기술이자 미래를 위한 자산이 되고 있다. 소누 씨가 한국에 대해 처음 알게 된 건 주변 친구들이 고용허가제(EPS·Employment Permit System)에 대해 이야기하면서부터다.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던 그에게 한국의 고용허가제는 새로운 희망이었다.

"친구 세 명과 함께 이 제도를 이용해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면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신청하게 됐습니다. 한국에 들어오는 날은 무척 떨리고 행복했습니다. 함께 들어온 친구들도 지금 다 한국에서 일하고 있어요."

소누 씨와 함께 입국한 미누, 우빈 씨는 지난 2024년 타지키스탄이 한국 고용허가제 17번째 송출국¹⁾으로 지정된 이후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은 근로자다. 고용허가제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운영하는 제도로, 한국의 중소기업이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한국과 송출국 정부, 공공기관이 선발과 도입 과정을 맡아 민간 브로커 개입과 과도한 송출 비용을 줄이고,

1) 인도네시아, 네팔,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필리핀, 파키스탄, 미얀마, 동티모르, 베트남, 태국, 몽골, 중국, 라오스, 타지키스탄



합법적인 절차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돕는다. 소누 씨 역시 이 제도를 통해 E-9(비전문취업) 비자를 받고 한국에 입국했다.

타지키스탄 청년의 첫 한국 생활 기록

물론, 타향에서의 생활은 처음부터 쉽지 않았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소누 씨에게도 문화 차이에 적응하는 시간은 필요했다.

“친구들과 떨어져 낯선 환경에서 혼자 일하는 게 어렵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한국 음식이 조금 힘들었어요. 타지키스탄은 빵이 주식인데 빵이 없어서 적응하기 어려웠거든요. 돼지고기도 못 먹었고요.”

할랄 문화권에서 자란 그에게 한국의 음식 문화는 낯설 수밖에 없다. 밥과 국, 김치, 그리고

돼지고기가 들어가는 다양한 요리까지. 새로운 나라에서의 생활이 실감 나는 순간이었을 터다. 처음 낯선 환경에서의 시간을 회상하는 소누 씨는 이내 다시 밝은 목소리로 말을 잇는다. “돼지고기는 못 먹지만 소고기나 닭고기는 먹을 수 있어요. 그런 음식이 많아서 먹는 건 많이 해결됐어요. 점심시간이면 밥도 나오고, 한국에서 일하며 친구도 벌써 10명을 사귀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일하니 외롭지 않고 일하는 환경도 좋아요.”

작업장에서 함께 동선을 맞추고, 쉬는 시간에는 간단한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이야기를 주고받는 사이에 ‘10명의 친구’가 생겼다. EPS 제도는 이렇듯 안정적인 일터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기도 하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업장에 배치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취업 과정과 체류, 귀국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관리·지원한다.

한국어는 아직 서툴지만, 그는 필요한 한국어 표현을 조금씩 익히며 매일매일 ‘더 나아지는’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꿈을 위해 흘리는 오늘의 땀방울

소누 씨가 한국에서의 생활에 이토록 적극적인 이유는 분명하다. 마음속에 품은 꿈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 올 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었어요. 나중에 고향에 돌아가면 가족들과 함께 살 예쁜 집을 짓는 게 꿈이거든요. 새로운 집을 지어서 가족과 함께 사는 날을 꿈꾸며 오늘도 열심히 일합니다.”

그가 오늘을 열심히 사는 이유, 바로 새로운 내일을 맞이할 수 있을 거란 희망이 있기 때문이

다. 이역만리 떨어진 한국에서 흘리는 오늘의 땀방울은 훗날 타지키스탄에 짓게 될 집과 연결돼 있다. 고용허가제는 일정 기간 한국에서 일한 뒤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전제로 한 제도다. 그래서 소누 씨에게 이 시간은 단지 ‘지금, 여기’만이 아니라 귀국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런 그에게는 한국에서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하나 더 있다. 바로 한국어 공부다.

“아직은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한국어가 서툴러요. 지금도 좋지만, 한국어를 더 잘 하게

되면 지금보다 더 편하고, 제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싶어요.”

지금은 주조 일을 배우며 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언젠가 한국어 실력이 더 좋아지고, 더 다양한 일을 경험하게 된다면, 자신이 가진 기술과 경험을 더 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믿는다. 한국에 첫발을 내디딘 타지키스탄 청년 소누 씨. 그는 오늘의 노동이 언젠가 가족이 함께 지낼 공간을 마련하는 거름이 될 것이라는 꿈을 꾸며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작업장으로 향한다.

“고향에 예쁜 집을 지어 가족과 함께 살 그날을 꿈꾸며, 오늘도 한국에서 성실히 땀을 흘립니다.”



인공지능(이하 AI)이 업무 효율성 향상의 훌륭한 도구라는 사실은 이제 모두가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 기업과 내 업무에 꼭 맞춘 AI 업무 프로세스가 정립돼 있지 않아서 개인의 능력에 따라 AI를 천차만별로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 AI 업무 프로세스 개발자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글 강진우



최적의 AI 업무 환경을 구축하다

최근 AI를 활용해 업무를 한층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다. AI를 적절하게 사용하면 정보 수집, 자료 정리 및 요약, 단순 반복 업무 등을 빠르게 수행하고 사용자는 더 중요한 일들에 집중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효율적인 변화의 모습이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이 같은 움직임이 주로 개인 단위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조직이나 기업의 공통적인 AI 업무 프로세스에 따라 AI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직장인들이 각자에게 편한 AI를 선택한 뒤 각각의 방식으로 운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이런 형태로 AI를 활용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다. 부서나 기업의 대외비 정보가 알게 모르게 AI의 학습 소재로 활용돼서, 같은 AI 툴을 사용하는 전혀 다른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당황스러운 상황이 때때로 연출된다. 서로 다른 AI 업무 프로세스로 인해 동료와의 협업에 어려움이 뒤따를 뿐만 아니라, 보직 이동 시 그간 AI와 함께해 온 업무 프로세스를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하기도 곤란하다.

때문에 AI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힘쓰는 기업들은 조직 내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통제할 수 있는 AI 시스템인 '소버린 AI(Sovereign AI)'와 이에 따른 맞춤형 AI 업무 프로세스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최근 각 기업의 요구에 꼭 맞춘 AI 업무 환경을 구축하는 AI 업무 프로세스 개발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배경이다.

사람과 AI 협업의 든든한 연결다리

AI 업무 프로세스 개발자는 각 기업과 부서의 기존 업무 프로세스와 AI 툴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수 있도록 이끄는 최적화 작업을 수행한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수많은 데이터와 상당 기간의 데이터 학습이 필요한 AI를 직접 개발해 활용하기보다는, 챗GPT와 같은 기존 AI 툴 중 하나를 선택한 뒤, 기업용 라이선스(License)를 취득해서 보안 검증을 거친 후 내부적으로 사용한다. AI 업무 프로세스 개발자는 이 같은 AI에 기업 맞춤형 업무 프로세스를 개발 및 이식하는 데 힘쓰며, 그 과정에서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AI에 반영한다. 이렇게 개발된 맞춤형 AI 솔루션을 통해 기업과 구성원은 AI를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학습

과 개선 및 보안을 통해 AI와의 협업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최적화된 업무 솔루션을 개발해야 하기에, AI 업무 프로세스 개발자는 고도의 프로그램 코딩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아울러 솔루션의 기반이 되는 AI 툴과 알고리즘에 대해 꿰뚫고 있어야 AI를 기업과 구성원의 요구에 맞게 학습시키고 업무 과정을 명확하게 정립할 수 있다. 사람뿐만 아니라 AI와도 적극 소통하며 그 능력을 끌어올려야 하므로, 정확한 명령어를 입력하고 원하는 결과값을 제대로 얻어내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능력도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처럼 다양한 전문성과 소양이 요구되기에 제 몫을 해내는 AI 업무 프로세스 개발자로 발돋움하는 데에는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지만, AI와의 동반성장이 필수인 시대로 접어든 만큼 능력을 인정받으면 많은 기업과 함께 일하며 자신의 가치를 높여 나갈 수 있다.



수고했다, 또 잘해보자

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 속 일하는 모든 이들에게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가 끝났지만, 드라마 속 인물들은 쉽게 잊히지 않는다. 그들의 고민과 선택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너무 평범해서다. 화면 속 이야기가 어느 순간 우리의 이야기로 겹쳐지는 이유다.

글 편집실 자료 JTBC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 공식 포스터



일은 바쁘고 마음은 더 바쁜 사람들에게

이 드라마는 <미생>의 퇴직 버전이라 할 만큼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승진 경쟁에 흔들리고 상사의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복잡해지는 주인공 김 부장의 모습은 많은 직장인의 현실과 같다. 직급이 올라가도 여전히 평가와 압박 속에 놓인다는 점에서, 그의 흔들림은 누구나 느끼는 감정을 대변한다.

김 부장이 새 사업을 고민하거나 상사의 분위기에 덜 흔들리려 애쓰는 장면은 그래서 더 현실적이다. 새벽까지 쌓인 업무 메일을 지우며 “오늘은 조금만 나를 챙겨보자”고 다짐하는 누군가의 일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 드라마는 그 모습을 특별한 사건 없이도 담담하게 보여준다. 그 담담함이, 오히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닮게 만든다. “왜 이렇게 짠하냐”라는 한마디의 대사가 오랫동안 맴도는 이유이기도 하다.

가족이라는 공간이 주는 작은 기운

드라마 속 가족들은 서로를 밀어붙이기보다 ‘각자의 자리에서 잘 해봐’라고 말한다. 아내는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아들은 진로를 다시

그려본다. 그 과정에서 김 부장도 자신이 없어 온 부담을 조금 내려놓는다. 극 중 가족은 갈등의 소재로 소비되지 않는다. 대신 서로의 선택을 “해봐도 좋다”고 응원하는 장면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이 모습은 집에서 조차 ‘일 이야기’가 따라오는 현실 속 노동자에게 작은 위안을 준다. 우리가 바라는 가족의 모습도 결국 이렇다. 문제를 완벽히 해결해주지 않아도, 적어도 내 편이라고 느끼게 해주는 존재. 드라마의 가족은 그 기본을 정확하게 짚어낸다.

그래서 결국 남는 건 ‘오늘의 나’

ACT 직원들의 서사는 더더욱 현실적이다. 누군가는 승진에서 밀리고, 누군가는 뒤늦게 인정받고, 어떤 동료는 부서 이동을 통해 다시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모두 조금씩 상처받으면서도 다시 일어선다. 우리 일터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장면들이다. 평가 결과에 마음을 졸이고, 변화한 팀 분위기에 적응하고,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되묻는 순간들. 드라마는 이 흔한 이야기들 속에서 특별한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다만 보여준다. 결국 중요한 건 직함이 아니라, 오늘 나를 움직이게 한 작은 이유라는 사실을.

드라마 속 인물들은 극적이지 않다. 그래서 더 현실적이고, 그래서 더 친근하다. 직장에서 흔들리고, 집에서 다시 고민하고, 다음 날 또 출근하며 하루를 이어가는 모습은 결국 우리 모두의 리듬이기도 하다. 드라마가 남긴 메시지는 크지 않지만 분명하다. “당신이 겪는 고민은 당신만의 고민이 아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든 노동자에게 이 말이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



01 청년 일자리 첫걸음 실천 선언



고용노동부는 2025년 12월 8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 및 경제5단체와 함께 '청년 일자리 첫걸음 실천 선언식'을 개최했다. 이번 선언은 9월 발표된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정부·경제단체·기업이 청년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기로 뜻을 모은 것이다. 민관합동 채용박람회는 수도권을 넘어 지역으로 확대되며, 지역 대학과 연계한 채용설명회와 대·중견·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일경험·훈련 프로그램도 강화된다. 또한 경제단체별 특화 협업과제를 추진해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와 청년 채용 여건 개선을 도모한다. 김영훈 장관은 청년 누구나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국가 성장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02 「노동안전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 개최



노사정은 지난 12월 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동안전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산업안전 강화를 위한 공동 대응에 뜻을 모았다. 이번 회의는 산업안전 의제를 중심으로 노사정 대표가 처음 모인

자리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제안에 노사 대표가 화답하며 성사됐다. 참석자들은 산업구조 변화·고용형태 다변화·기후 위기 등으로 산업현장의 위험 요인이 복잡해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노사정의 역할이 절실하다는데 공감했다. 상시 협의체 '안전한 일터 위원회' 구성을 논의했으며 노사 참여와 책임 강화, 안전 투자 확대, 안전 문화 확산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03 「한랭질환 및 중독·질식 사고 예방」 철저 당부



고용노동부는 동절기를 맞아 지난 12월 5일 경기 용인 건설현장을 방문해 한랭질환 및 중독·질식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원·하청 현장소장, 안전·보건관리자, 노동자 등이 참

석했으며,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한파대비 노동자 안전보호대책'에 따라 작업 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고용우 산업보건보상정책관은 건설현장은 야외작업 비중이 높아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콘크리트 보온양생 시 일산화탄소 등 중독·질식 위험이 높은 만큼 열풍기 사용 원칙, 가스농도 측정·환기·보호구 착용 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04 외국인 직업능력개발 지원방안 간담회 개최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지난 12월 5일 대림대학교에서 '외국인 직업능력개발 지원방안 간담회'를 열고 외국인 유학생의 숙련·안전 향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양 부처

와 대학·기업·유학생 등이 참석했으며, 일학습병행 과정 이수 후 취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경험담을 공유했다. 일학습병행을 통해 현장훈련과 이론교육을 병행한 유학생을 채용한 기업들은 인력난 해소 효과를 강조했다. 정부는 일학습병행 훈련을 이수한 외국인 유학생이 전공·경력 제한 없이 취업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를 개선했으며, 이를 통해 기업 인력 수급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05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기획 감독



고용노동부는 2025년 12월 4일부터 약 두 달간 이른바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 곳을 대상으로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 '가짜 3.3 계약은 4대 보험 회피 등을 위해 근로자를 프리랜서 형태로 위장해 사업 소득세 3.3%를 납부하게 하는 방식으로, 명백한 노동법 위반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 감독은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으로 국세청의 소득세 신고 정보를 제공받게 되면서 가능해졌으며, 사업소득자 비중이 높은 업종 가운데 체불·법 위반 이력을 분석해 감독 대상을 선정했다. 고용부는 단속에 그치지 않고 교육과 홍보를 병행해 관행 확산을 차단하고, 내년에도 의심 사업장을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12월 4일부터 약 두 달간 이른바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 곳을 대상으로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 '가짜 3.3 계약은 4대 보험 회피 등을 위해 근로자를 프리랜서 형태로 위장해 사업

06
노동안전 현안
점검회의 개최



'25년 3분기 사고사망자가 전년 동기 443명에서 457명으로 늘어난 데 대한 엄중한 인식을 공유하고,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철저한 이행과 함께 단기 집중과제 추진을 지시했다. 특히 노동자 권한 강화, 지방정부 등 공공부문 소규모 사업장 점검 확대, 노후 석탄발전소 안전대책, 외국인 노동자 안전교육 점검 등 4대 분야에 속도감 있는 대책 마련을 강조했으며, 2~3개월 내 실질적 변화와 성과를 평가하기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2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 등 12개 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안전 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산업재해 사망자 증가 원인을 분석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07
「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
토론회 개최



계기로 전문가·노사 단체·지방정부가 참석해 근로감독 행정의 향후 방향을 논의했다.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 중 가장 규모가 크지만 권한과 역할을 규정할 독립 법률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으며, 지방정부 위임 확대 등 행정 환경 변화에도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영훈 장관은 근로감독 행정의 법적 기반을 강화해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가 신뢰하는 감독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월 3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한국행정학회, 기후노동위·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주영 의원의 법안 발의를

08
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도입



육아휴직 등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기관 간 정보 연계로 절차가 간소화된다. 12월 15일부터 육아휴직급여·국민내일배움카드 시범 운영 후 내년 상반기 실업급여 등으로 확대된다. 고용행정통계포털은 국민취업지원제도·외국인 고용사업장 등 36종 통계를 추가 개방하며, 2026년부터 AI 기반 이력서·채용 확률 컨설팅과 청년 맞춤 프로그램 추천 등 개인화 고용서비스가 제공되며, AI 데이터 레이크 구축도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월 3일 제6차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도입과 고용행정통계 개방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실업급여·

전나무숲길을 걸으며 자연과 교감하는 시간

오대산 월정사

힘차게, 맑은 정신으로 새해 계획을 세우고 싶다면, 강원도 깊은 산속에 자리한 오대산 월정사와 전나무숲길을 걸어 보자. 오랜 사찰이 간직한 경건한 기운을 느끼며, 전나무숲의 푸른 자연 속을 향유하는 사이, 마음 한편을 어지럽히던 생각들이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글 김민영 사진 정우철



깨달음의 빛이 머물다, 월정사

새해가 밝았다.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좋은 이때, 맑은 자연 속으로 가 생각을 정리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해 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마명한 장소로 쉬엄쉬엄, 자연과 교감하며 걷다 보면 도착하는 오대산 월정사를 추천한다.

강원도에 있는 오대산은 강릉, 정선, 평창의 태백산맥 주맥에 자리한 만월산, 장령산, 기린산, 귀왕산, 외려산을 가리킨다. 다섯 개의 산을 가리켜 오대

산이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그 깊은 산중에 월정사가 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의 본 사찰로 알려진 이곳은, 우리나라에서도 큰 사찰에 속한다. 신라 선덕여왕 때 자장율사가 창건한 이후 지금까지 많은 사람이 방문하고 있다. 특히 새해가 되면 '달의 정기, 깨달음의 빛이 머무는 곳'이라는 월정사의 이름처럼, 달처럼 맑은 지혜와 자비로움을 얻고자 찾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경건한 마음으로 월정사를 돌아보다

가장 빠르게 가는 방법은 월정사 주차장에 주차하고, 오대천 위의 금강교를 건너서 가면 된다. 천왕문을 지나면 사찰의 모습이 한눈에 담기는데,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국보 제48호 팔각구층석탑이다. 이 탑이 더 특별한 이유는 한국전쟁 이후로 대부분의 우리 문화재가 소실되었음에도 팔각구층석탑의 청동제 풍경 장식이나 탑의 맨 꼭대기 지붕돌 위에 있는 금동

장식의 머리 형태가 완벽하게 남아 있어서다. 고대 중세 불탑 가운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유물로서, 2025년에는 원본을 불탑에서 분리 후 보존 처리해 박물관에 전시하고 있다. 현재 월정사에 있는 것은 복제품이다. 그런데도 가치가 있는 탑 앞에서 사람들은 기도를 드리고, 시간을 보내다 간다. 고요한 월정사 내부를 걷다 보면, 새롭게 짓는 사실과 기도를 드리는 법당



쪽 뺨은 전나무숲에서 치유하다

월정사 투어는 사찰을 둘러보는 데서 끝나면 안 된다. 일주문부터 금강교까지 이어지는 전나무숲길은 광릉 국립수목원(경기 포천시)의 전나무숲, 변산반도 국립공원 내소사(전북 부안군)의 전나무숲과 함께 우리나라의 3대 전나무숲으로 손꼽히는 곳이다. 약 1km의 거리에 쪽 뺨은 전나무가 숲을 이뤄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힐링을 선사한다. 이곳을 향유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숲길을 따라 걸으며 자연과 교감하는 것. 천천히 걷다가 숲 중간에 마련된 쉼터에 앉아 쉬어도 좋고, 벤치에 앉아 오

대천의 맑은 물소리를 들어도 좋다. 날씨가 따뜻한 계절에는 황톳길을 맨발로 걷는 체험도 가능하다. 걷다가 운이 좋으면 다람쥐나 새를 만날 수도 있고, 2006년 쓰러지기 전까지 숲에서 가장 오래된 수령 600년의 쓰러진 전나무의 흔적을 볼 수도 있다. 사계절 언제나 풍경이 좋아 월정사에 오면 꼭 들러야 하는 필수 코스가 된 이곳. 드라마 <도깨비>에서 나온 것처럼, 하얀 눈이 내린 숲길 풍경이 정말 아름답다는데 한겨울에 찾을 계획이라면 때를 잘 맞춰 눈에 담아 보기를 바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



불편하지만 굳은 의지로 지속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귀차니즘의 끝판왕의 새벽달리기 (나와의 약속 지키기)



프로 쇼핑러의 세일할 때까지 기다리기



불편함에는 자연히 인내해야 할 것들이 따라오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는 이유는 결국 내 마음에 드는 나를 만나기 때문이 아닐까요?

무엇으로 선택하시겠어요?



경험은 많이 해 볼수록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



내가 했던 수많은 경험 중 어떤 게 나에게 가치 있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생각은 구체적인 방향성을 만들어 주고, 방향성이 생기면 삶의 방식이 조금 더 선명해진다.



삶은 유향하다. 그러니 이왕이면 가치있는 것들을 담으며 살자.

달라진 연말정산, 이렇게 준비하자!

2025년도 귀속분 연말정산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과연 어떻게 준비해야 이른바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더 낸 세금'을 제대로 환급받을 수 있을까. 지금부터 이번 연말정산 대응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글 강진우



연말정산의 핵심, '꼼꼼한 준비'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1년간 납부한 소득세를 계산한 뒤 더 낸 세금은 환급받고, 덜 낸 세금은 추가 납부하는 일련의 절차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2026년 3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조금만 신경 써서 준비하면 생각보다 많은 세금 환급금을 받을 수도 있다.

연말정산은 시대적 흐름, 국가 경제 상황, 국민적 요구 등을 반영해 매년 개정되는데, 올 1~3월에 이뤄지는 연말정산, 즉 2025년도 귀속분 연말정산에도 변화가 생겼다. 이번에는 청약, 전세대출, 문화비, 기부금 등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이 완화되거나 세액공제 금액이 인상되고, 청년 및 자영업자에 대한 절세 혜택이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먼저 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은 기존 무주택 세대주에서 배우자까지 확대됐다. 최대 300만 원 한도로 납입액의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공제도 연 400만 원 한도로 원리금 상환액의 40% 공제가 가능하다.

육아에 따르는 비용적 부담 경감을 위해 자녀수에 따라 세액공제 받는 자녀세액공제가 각 자녀당 10만 원씩 늘어났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3명이라면 총 95만 원을 공제 받는다. 또한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수영장과 헬스장 이용료가 포함되어 해당 금액의 3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제 혜택도 강화됐는데, 10만 원 기부 시에는 100%, 10만 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서는 일반 지역의 경우 15%, 특별재난지역은 30% 세액공제를 받는다. 청년과 자영업자를 위한 혜택도 늘었다. 청년들의 재산 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혜택이 2025년까지로 연장되면서 연 납입 한도인

600만 원의 40%, 즉 최대 240만 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을 할 때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면 대부분의 공제 항목이 자동으로 조회된다. 다만 월세, 기부금, 자녀 학원비 등 일부 항목은 증빙 서류가 필요하므로, 해당 서류를 미리 준비한 뒤 수동 첨부해야 세액공제 금액을 최대치로 높일 수 있다. 꼼꼼히 챙긴 만큼 '13월의 월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짐은 물론이다.

연말정산 환급 확률을 높이는 '꿀팁'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올해 1~9월간 신용·체크카드 등의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금액을 비교 분석해 2025년도 귀속분 연말정산의 예상 세액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서비스로, 소득 및 지출 변동이 연말정산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알아볼 수 있다.

공제에 필요한 제출 서류 준비

일부 세액공제 항목은 증빙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자. 예를 들어 주택청약저축 공제의 경우 '무주택 확인서'를,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월세 이체 증빙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만약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다면, 추후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 항목 수정 및 추가 환급이 가능하다.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 카테고리 내 '경정청구 작성'을 선택한 뒤 누락된 공제 항목을 수정해 제출하면 된다.

당신의 하루를 되찾는 작은 혁명

리셋데이(Reset Day)

매일 쌓이는 일상 속에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단 하나의 질문.
 “지금의 속도는 나에게 적당한가?” 리셋데이는 그 답을 찾기 위해 멈추고, 정돈하고, 다시 시작하는 용기다.

글 편집실



일상 속에서 사라지는 주도권

직장인의 하루는 대부분 외부 요구에 의해 빠르게 채워진다. 아침부터 업무 메시지가 쌓이고, 출근길에는 해야 할 업무가 머릿속을 점령하며, 사무실에서는 예기치 않은 요청들이 이어진다. 회의와 보고가 반복되는 동안 개인의 의도와 목표는 흐려지고, 일상은 점차 소모적으로 변한다. 이러한 누적 피로는 갑작스러운 번아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축적되며 일의 질과 삶의 균형을 흔든다. 이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노력이나 빠른 속도가 아니라, 흐름을 잠시 멈추고 재정렬하는 시간이다. 이렇듯 직장인들의 ‘리셋데이’는 업무 스트레스와 일과 삶의 불균형에서 벗어나 심신을 재충전하는 특별한 하루를 의미한다.

리듬을 되찾기 위한 인도적 멈춤

리셋데이는 바로 이 재정렬을 위한 작은 실천이다. 특별한 휴식이나 이벤트가 아닌, 일상 속에서 자신에게 부여하는 인도적 멈춤이다. 책상을 정돈하거나 일정을 재검토하는 단순한 행동일 수 있지만, 이는 업무 구조를 다시 세우고 내적 리듬을 회복하는 기제로 작동한다. 리셋데이는 정해진 날짜가 아니라 필요에 의해 스스로 선택하는 재정비의 순간이며, 직장인이 일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활용하는 실질적인 자기관리 도구다. 이는 업무의 양을 줄이지 않더라도 마음의 부담을 완화하고 다시 집중할 기반을 단단하게 해준다.

효과적인 리셋데이를 구성하는 방법

효과적인 리셋데이는 개인의 방식에 따라 다르지만 공통된 흐름이 존재한다. 먼저 물리적 환경을 정돈해 시각적 질서를 회복하는 일이다. 문서와 파일을 정리하고, 메일함을 재정리는 행위는 사고의 흐름을 단순하게 하며 업무 구조를 명확히 한다. 다음으로 일정과 우선순위를 재검토해 중요한 일과 보조적 업무를 구분하고, 조정 가능한 요소를 정리해 여유를 확보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상태를 점검해 부담 요인과 집중해야 할 지점을 파악하면 업무의 방향성이 다시 선명해진다. 짧은 시간으로도 하루와 한 주의 흐름을 안정시키는 데 충분한 효과가 있다.

지속 가능한 일상을 만드는 작은 혁신

리셋데이를 꾸준히 실천하는 이들은 업무의 본질이 아니라 태도가 달라졌음을 경험한다. 같은 양의 일을 하더라도 압박감이 줄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감각이 회복되면서 대응력과 회복탄력성이 높아진다. 작은 멈춤은 지속 가능한 성과를 가능하게 하고 변화 속에서도 균형을 잃지 않을 힘을 제공한다.

2026년의 시작에서 리셋데이는 단순한 일상 관리 기법을 넘어 지속 가능한 커리어를 위한 기반이 될 것이다. 필요할 때 잠시 멈추고 자신의 속도를 조절하는 능력은 한 해의 성과를 결정짓는 중요한 역량이며, 누구에게나 적용 가능한 작지만 강력한 혁신이다. 올해 이 작은 혁명이 각자의 일상에 안정과 방향성을 더해주시기를 기대한다.

리셋데이 일상을 성공시키는 팁

- ① 30분이면 충분
 욕심내면 습관이 되지 않아요.
- ② 항목은 5개만 선택
 모든 걸 다 할 필요 없습니다.
- ③ 한 달에 최소 1번
 주기성이 있어야 안정적인 정돈 효과가 생깁니다.
- ④ 기록은 최소화
 적는 게 아니라 정리하는 느낌이 중요합니다.



「월간 내일」과 함께 하는 QUIZ



「월간 내일」 2026년 1월호를 읽고 모의고사에 응시해 보세요!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선택형 제출범위. MOEL 아카이브

2026년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핵심 비전은 무엇인가?

- ① 노동시장 유연화 중심의 성장 ②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
- ③ 산업 경쟁력 최우선 정책 ④ 청년 일자리 확대 중심 국가

hint. 2026년 노동정책은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으로 목표를 정했다.

선택형 제출범위. MOEL 아카이브

고용노동부가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정책으로 맞는 것은?

- ① 청년 정책 대상 연령을 29세로 유지 ② 대기업 중심의 산업안전 관리 강화
- ③ 청년 정책 대상 연령을 34세까지 확대 ④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근로시간 중심으로 유지

hint. 고용노동부는 청년 정책 대상 연령을 확대하고 일할 기회 격차 해소에 나선다.



참여방법 | 이벤트는 QR코드를 통해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Step 1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

Step 2 이벤트 응모 입력 후 제출



※ 참여기간
2026년 1월 16일(금)까지
※ 당첨자에겐
별도로 연락드립니다.

12월호 당첨자 축하드립니다!

문○광(5639)	이○윤(8057)	임○영(3923)	전○주(6083)
이○애(3860)	김○영(5232)	한○희(8532)	이○호(2890)
김○주(4066)	김○경(8529)	장○현(4958)	박○원(6501)

「월간 내일」 구독 및 구독 해지 방법

- ① 「월간 내일」 웹진에 접속합니다.
 - ② [QUICK MENU]를 클릭하고, '구독신청 및 해지'를 클릭합니다. 또는 홈페이지 제일 아래의 '구독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③ 구독하시려면 '신청하기' 버튼을, 구독을 해지하시려면 '해지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 구독 및 해지를 위해 정보입력 및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가까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제도·정책 소식이 궁금할 때,
고용노동부와 소통하고 싶을 땐 QR을 스캔하세요!



웹진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트위터